

기억과 해석의 의미: '만주국' 과 조선족

崔峰龍 중국·연변역사연구소

1. 들어가는 말

만주¹⁾는 한민족의 역사에서 특수한 지역·'성스러운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고조선'의 발상지로서 한민족의 원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은 근대에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적(離散的)형태로 나타난 대량적인 이주(遷入)²⁾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20세기 초 만주는 서세동점과 더불어 양육강식의 논리에 기초한 식민주의적 사조가 신속하게 팽창됨에 따라 동아시아 패권을 다투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제가 점차 만주에 침략의 마수를 뻗으면서부터 이 지역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질서 체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만주사변'의 부산물로 탄생된 괴뢰국가-일본제국의 대륙침략 정책에

의해 '독립국'의 형태로서 만들어진 신형의 식민지국가·'만주국'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와 기억 속에서 각기 서로 다른 의미로 인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아시아 국가와 여러 민족은 각기 서로 다른 시각에서 그 역사 속의 기억들을 해석하려고 한다.

역사는 인간의 기억 즉, 언어와 글을 통해 기록된 자료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나 역사의 모든 객관적 사실은 그 원형대로 인간의 기억에 남지 못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가들은 인간의 역사를 기억(기록)과 해석을 통해 그 객관적인 사실-원형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역사와 기억에 대한 해석은 사가들의 사관과 시각이 다름에 따라 그 의미도 다르게 된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역사는 곧 기억의 역사이고 또한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인은 '만주국'을 근대화(의 실험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가 하면, 중국인들은 '만주국'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괴뢰정부 혹은 '거짓'=

논문접수일 : 2005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5년 4월 20일

- 1) '滿洲'란 지리적 개념은 중국 동북지구를 지칭하는데, 오늘날의 흑룡강, 길림, 요녕 3성을 포괄하는 지역을 말하며 중국인들은 '동북' 혹은 '동북 3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만주'라는 용어를 상용하고 있다. 광복 전까지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모두 이 지역을 '만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필자는 이 글에서도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 2) 근대 19세기 중엽부터 광복될 때 까지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주하여 점차 정착한 재만 조선인(조선인)의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흔히 '移住民族' '遷入民族' 또는 '跨境民族' '跨界民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이주민족'이라는 뜻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고 국경을 넘어 주변 국가(로) 유출된 민족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한반도=한국/조선의 입장에 본다면), 그리고 '천입민족'이란 뜻은 중심적인 시각을 만주에 맞추어 주변(로)부터 유입된 민족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중국의 입장에 본다면), '과경민족(跨境民族)' 혹은 '과계민족(跨界民族)'은 민족학적으로 한 민족의 구성원들이 본국의 국경을 넘어 타국에 '이주'='천입'하여 거주하는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을 밝혀둔다. 오늘날 중국에 거주하는 200만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광복 후에 중공당의 민족정책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광복 전에 만주에 이주·하여 거주했던 재만 한인/조선인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성격의 개념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족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만주국'시기의 재만 한인/조선인을 '조선족'의 범주에서 다루려고 한다.

‘僞’자를 붙여서 ‘僞滿洲國’으로 칭하고 있으며, 만주에서 전개된 조선인들의 항일민족독립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시종 무장투쟁론의 방략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다.

요즘 한국 사회 속에서 만주지역에 관한 논의-‘고구려 문제’를 비롯하여 ‘간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만주라는 이 특수한 지역은 또 다시 큰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다. 역사적 事實은 史實로서 기록되어 인간들의 기억으로 남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 史實이 事實로서 왜곡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논의가 학문적인 범위를 초월하여 정치적·외교적으로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때면, 중국 내에서 한 개 소수민족으로 정착하고 있는 200만 중국 조선족들에게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 조선족들은 한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중국의 공민권을 소유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과연 역사적으로 만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만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가? 특히 일제의 식민지 국가체제-‘만주국’의 틀 속에서 그들이 처한 사회적 법적인 지위는 어떠했으며 또한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었는가? 필자는 이러한 물음에 초점을 두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측면-반만·항일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민족으로서의 ‘抗日像’과 더불어 일제의 침략전쟁동원과 병참기지화정책에 가장 주동적으로 부응했던 ‘제2일본인’으로서의 ‘親日像’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만주국’의 기억과 해석 속에서 그 이미지를 그려본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선 조선인의 만주에로의 이주와 더불어 ‘민족고토론’에 대한 인식을 간략하게 더듬

어보고, 다음으로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의 법적인 위치와 함께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이용정책’ 및 조선인의 두 가지 얼굴-‘抗日像’과 ‘親日像’ 대한 기억과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인의 이주와 만주-‘고토론’

기록에 의하면 근대 한인들의 만주에로 이주는 여러 가지 역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찍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³⁾ 한인들의 초기 이주에서 주요한 동기는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비롯된 경제적 원인에 있었다. 특히 1876-1870년간 조선 서북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기아에서 허덕이던 변민들은 ‘월강죄’를 무릅쓰고 두만강·압록강을 건너게 됨으로써 이주 한인의 숫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시 청나라는 ‘봉금정책’을 실시하면서 비합법적인 ‘월간한민’을 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의 요구에 따라 1년 안에 조선으로 추방한다는 고시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던 조선인들의 귀환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1881년 청나라는 『盛京東邊開墾地開墾條例』에 근거하여 길림성 남부의 ‘南荒園場’-연변지역을 개방하고 훈춘에 招墾總局을 설치하고 南崗, 훈춘과 동오도구 등 곳에 ‘招墾局’을 설치하고 ‘移民實邊政策’을 실시하면서 주로 관내의 산둥, 하북성의 漢族들의 이민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인들의 이주는 여전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1883년 서북경략사에 임명된 어윤중은 간도 개간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정부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문서인 지권을 교부하여 한인들의 북간도 이주를 실질적

3) 조선족의 천입기점에 대해 역사학계에서 여러 가지 설법을 살펴본다면 주요하게 上著民族說, 元末明初說, 明末清初說, 19세기 중엽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9세기 중엽설이 비교적 正統說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중국 대륙으로 이동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것은 유이민사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중국 조선족이라는 민족 공동체와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조선족 이주사의 천입기점으로 될 수 없다고 본다. 金元石, 『韓國史學』 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p.49-76 참조

으로 승인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인들은 두만강 이북과 이서지역 즉 북간도 일대가 청나라 영토가 아니라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토 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 1902년에 조선정부는 이범윤을 간도관찰사(이듬해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거주 한인의 호구와 인구를 조사하여 조세제도와 지방행정제도를 갖추도록 조치함으로써 북간도에 이주한 한인들의 고토관념이 더욱 조장되었고 또한 이러한 민족고토에 대해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였을 만큼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북간도 지역에 한인들이 대량적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러전쟁 이후 일본은 남만에 대한 특권을 얻고 관동군을 주둔시키고 만철주식회사를 건립하고 만주에서의 식민지세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은 이른바 '한인 보호'와 '영토 소속 미결'이라는 구실로 1907년 8월 용정촌에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를 세우고 만주에 대한 침략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것은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간도지역이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일제는 한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혹은 한인들의 이주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서 '민족고토론'을 역설하면서 한인들의 고토의식을 '부활'시키는데 노력함으로써 일부 '친일파'·일진회 회원을 비롯한 '친일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친중파'·유림계급의 한인들은 중화사상을 배경으로 일제의 침략적인 음모를 밝히면서 간도가 중국 영토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1909년 9월에 체결된 '간도협약'에 의해 간도영유권은 청나라에 귀속되고 한인들의 정착·거주권과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재만 한인사회는 이때로부터 점차 '배일파'와 '친일파'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북간도에서 서전서숙의 설립을 효시로 민족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특히 1910년 8월 '한일합방'이후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가심해짐에 따라 만주에 이주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두 번째 고조기를 이루었는데, 그 이주 동기는 주요하게 정치적 원인이 있었다. 즉 국내에서 항일운동의 한계를 느낀 의병장들을 포함한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 건설(유하현 삼원포, 북간도 명동촌, 밀산부 한홍동 등 곳)에 착수함으로써 이 지역은 항일민족독립운동의 중심무대로 되었다.

이 시기에 재만 한인사회 내에서 고토관념은 여전히 팽창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대종교가 본부를 만주에 옮기면서 크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환인현에 망명한 윤세복은 서간도에서 대종교의 포교와 더불어 배일사상을 고취하면서 "한민족의 祖先은 白頭山麓에서 나왔고 支那民族 및 大和民族과 같은 것은 그 支族에 지나지 않는다. 故로 我等은 努力하여 國權을 회복하여 夫餘民族과 夫餘國의 獨立發展을 圖謀하지 않으면 안된다"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國權의 回復'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소위 '夫餘民族과 夫餘國의 獨立發展을 圖謀'한다는 것은 한민족의 영토관념의 범위를 확대시킨 고토의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인들의 고토의식은 대종교의 역사관이나 또는 영토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시대에 정립된 민족사학의 선구자들에 의해서 더욱 폭넓게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단재 신채호의 『독사신론』(1908년), 『조선사-조선상고사』(1931년)는 민족의 뿌리를 찾음에 있어서 만주를 역사적으로 민족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⁵⁾ 그러나 그는 만

4) 朝鮮總督府, 「國境地方視察復命書」, 大正4年, 金正柱編, 「朝鮮統治史料」9, p.738.

5) 박영석, 「丹齋 申采浩의 滿洲觀」, 丹齋申采浩先生誕辰100周年記念論集, 「丹齋申采浩와 民族史觀」, 1980, p.291.

약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만주에 이주한 한인들은 ‘사상의 고상계 함’을 통해 ‘국수의 보전’과 ‘정치능력의 양성’을 호소하기도 했다.⁶⁾

1920년대로부터 ‘만주사변’ 전에 이르기까지 재만 한인들의 항일민족해방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되었으며, 그들은 비록 민족합동전선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념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큰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단순히 ‘민족 독립’과 ‘민족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동정과 후원을 받을 수 없었고, 사회주의 계열(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서는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에 따라 중공 만주성위에 포섭됨으로써 한인들의 자주성과 독자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물론 중공 만주성위에서는 일찍부터 재만 한인에 대해 중국 내의 한 개 소수민족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독립 국가’를 건립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의 발발과 함께 그 이듬해 3월 1일에 ‘만주국’이 성립되면서부터 중·일 양 민족 간의 모순이 첨예화되면서 중국인들의 반만·항일운동이 고조됨에 따라 재만 한인들의 항일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전환기, 즉 한·중 양 민족은 반만·항일이라는 공동한 목표를 위해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건립은 재만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적인 심성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즉 ‘만주국’에서 재만 한인의 사회적 법적인 지위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들은 ‘만주국’이라는 ‘신국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

리고 그들은 이 ‘신국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가? 등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3. ‘滿洲國’과 朝鮮人の 法的地位-‘2등 국민’

1931년 9월 18일, 일본군은 심양 부근의 남만철도 구간을 폭파시키는 이른바 ‘류조호사건’을 구실로 중국 동북군(국민혁명군)이 주둔하고 있던 북대영을 습격함으로써 중의를 진감하는 ‘滿洲事變’이 발발하였다. 이 ‘사변’은 일제가 일찍부터 야망을 품고 있던 ‘大陸政策’의 일환으로서 그것은 무력으로 대륙을 점령하려는 시도이었다. 하지만 일본군의 무력 침략에 대한 장개석의 不抵抗政策에 의해 장학량이 이끄는 동북군 22만은 대부분 관내로 이동(일부는 반만항일의 기치를 들고 동북의 용군에 편입되고, 일부는 토비로 전락됨)함으로써 만주는 일주일 사이에 ‘太陽旗의 樂土’로 변하였다.

이듬해 2월 16일~18일, 奉天에서 이른바 ‘獨立’을 선포한 동북 3성의 거두인물들은 일본 관동군의 조종 밑에서 4頭會議⁷⁾을 開催하고 ‘자주 독립, 군벌타파, 평등대우’를 표방하는 「東北行政委員會宣言」을 반포하여 “즉시 지금부터 國民政府와 關係를 離脫하고 東北省區는 完全한 獨立”을 선언하였다.⁸⁾ 그리고 2월 25일 신국가 건설 및 통치원칙의 대강으로 동북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新國家組織大綱」을 만들어 新國家의 명칭은 ‘滿洲國’, 정치이념은 ‘民本主義’, 국가원수는 ‘執政’, 국기는 ‘新五色旗’, 정체는 ‘立憲制’, 국호는 ‘大同’, 수도는 ‘長春’(후에 新京으로 개칭함)으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2월 29일 「政府組織法」 및 「人權保障條令」을 제정하고 신국가의 기본 기틀을 확립한 후 3월 1일에 『滿洲國建國宣

6) Ibid, pp.300-301.

7) 1932년 2월16일~18일 奉天商埠에 있는 張景惠의 私宅에서 이른바 ‘獨立’을 선포한 동북3성의 거두인물인 熙洽, 馬占山, 臧式毅 등이 日本關東軍과 合議하여 ‘滿洲國’의 건립을 위한 ‘建國會議’를 말한다.

8) 永松淺造 著, 『滿洲建國誌』, 學友館版, 昭和17年, p.121.

言』을 반포하고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溥儀를 ‘執政’으로 하는 ‘만주국’을 세웠다.

만주국은 ‘독립국’이라고 하지만 실제상 일본 관동군이 ‘독립국’이란 형식을 통한 독특한 지배 전략⁹⁾에 의해 완전히 지배·통제되는 ‘괴뢰정부’-새로운 국가 형태를 갖춘 식민지국가이었다. 만약 이 국가의 독립적인 형태를 인정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근대 국가’로 장식되었던 만주국은 하나의 다민족·다종교를 수용하면서 ‘禮教’-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종교적 국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滿洲國’의 건립과 그 통치시기(1932-1945)는 일찍부터 만주에 이주하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재만 한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만 한인에 대한 일제의 통치 방식은 시기에 따라 여러 형태¹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문제가 바로 일제가 ‘대륙침략’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한인문제’-즉 재만 한인들을 ‘보호’한다거나 혹은 ‘불령선인’에 대한 토벌을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한인문제’는 항상 중·일 양국의 외교적 모순의 초점으로 대두되어 마찰과 대립, 충돌과 분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했 듯이 1907년 8월 ‘간도문제’에서 ‘영토 귀속 불명’과 ‘한인 보호’를 구실로 용정촌에 설립한 ‘조선총독부간도임시파출소’를 효시로, 1915년 1월 「만몽조약」, 1920년 10월 ‘간도출병’, 1925년 6월의 「미쯔야협정(三矢協定)」, 1930년 ‘만보산사건’ 등은 모두 일제가 만주의 ‘한인문제’를 대륙침략의 도

구로 이용한 전형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리하여 심지어 일제는 만주사변은 재만 한인들을 군벌 통치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던 것이다.

만주사변 전에 재만 한인들 중에서 중국에 입적한 ‘귀화인’(일본은 일방적으로 시종 승인하지 않았지만)은 법적으로 중국인의 대우를 받았으나 그렇지 않은 한인들은 ‘일본신민’이란 신분으로 일본 영사관의 치외법권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귀화했거나 그렇지 않은 재만 한인들은 모두 중·일 양국의 틈새에 끼인 ‘중간자의 존재’로서 중국 측은 그들을 일제의 만주침략의 ‘주구’ 혹은 ‘앞잡이’라는 오해를, 또한 일본 측은 그들을 ‘불령선인’ 혹은 ‘赤化의 禍根’¹¹⁾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는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해감에 있어서 재만 한인들은 여러 민족들 속에서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협조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만주국시기에 외형적으로 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은 공문에서 확인될 수 있다.

「滿洲國建國宣言」에서 ‘민족협화, 공존공영’을 국가운영의 기본방침·‘건국이상’으로 제시하면서 “무릇 신국가 영토 내에 거주하는 者는 種族의 岐視, 尊卑의 分別을 하지 않고 原有의 漢族, 滿族, 蒙族 및 日本, 朝鮮의 各族을 除外하고 기타 다른 國人들이 長久한 居留를 願하는 者도 역시 平等한 待遇를 享유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응당 얻어야 할 權利를 保障하며 그에 대하여 추호도 侵損하지 않는다”¹²⁾라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민족의 ‘평등’과 ‘협화’를 주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만 한인들은 만주국에서 ‘五族’의 하

9) 韓錫政 著,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1999, p.13.

10) 일제의 만주 침략과 더불어 재만 한인에 대한 지배정책을 시기에 따라 1907년 8월 통감부간도파출소의 설립부터 1931년 만주사변까지 ‘통제’와 ‘이용’시기로,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37년 7월 중일전쟁까지는 ‘통제’와 ‘안정’정책시기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통제’와 ‘扶育’정책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일제는 중·일간 민족모순의 변화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켰지만 ‘통제’를 원칙과 전제로 하면서 이용과 안정 및 부유이라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대륙정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정치상에서 ‘보호’를, 경제상에서 ‘구제’, ‘원조’를, 문화상에서 ‘지지’, ‘개선’이란 간판을 내걸었다.

11) 「問島集團部落建設概況」, 「朝鮮總督府調査月報」, 昭和十年 三月(第六卷 第三號), p.105.

12) 永松淺造 著, 「滿洲建國誌」, 學友館版, 昭和17年 p.129.

나로 일본인과 함께 만주국 국민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人權保障條令」에서도 “만주국에 거주하는 인민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의 평등한 권력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¹³⁾이라는 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주국에 있어서 일제는 種族優越主義論에 입각하여 일본인을 중심으로, 또한 재만 한인을 ‘일본제국신민’의 일부분으로 취급하면서 “만주에 있어서 ‘五族協和’라고 하는 것은 內地人을 中心으로 하여 타민족이 協和한다는 意味로서 內地人이야말로 王道樂土建設의 主腦者가 되는 것이다¹⁴⁾”라고 주장하였다. 즉 재만 한인은 만주국에서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신분과 일제제국의 신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것은 일제가 이른바 ‘一視同仁, 五族協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본인을 중심으로, 재만 한인의 지위를 편승시키는 형식을 빌어 민족 간의 모순을 조장시키는 기편 수단이었다. 일제는 만주국의 국기-‘五色旗’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다.

건국의 대정신은 그 국기(五色旗)에서도 엿볼 수 있다. 黃은 生成發展을 意味하고 赤은 赤心熱心을, 白은 純白淸淨을, 黑은 意志強固(혹은 勇敢 혹은 強靱)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각 민족을 表徵하면 黃은 滿洲族을 意味하고, 赤은 赤心誠忠의 內地人, 靑은 支那人(服裝도 靑衣), 白은 鮮人, 黑은 蒙古人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東亞는 만주의 五色旗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五族協和가 필요하고, 五族協和야말로 東亞新秩序의 골자로서 理想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처럼 일제는 만주국에 있어서 ‘오족협화’라는 미명으로 일본인(朝鮮人을 포함)을 중심으로 민족적 차별 정책, 즉 ‘오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종족)을 배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오족’의 순위를 일, 선, 만, 한, 몽으로 배열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중적 존재’인 재만 조선인이 만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일본인과 더불어 ‘특수한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일제가 이러한 민족 차별정책을 실시한 목적은 만주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 간의 갈등과 모순을 조작함과 동시에 그러한 모순과 갈등을 역동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있었으며, 이러한 일제의 민족 간의 이간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리인-‘희생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조선인들이었다.

1937년 12월, 일제는 「만주국에 있어서 치외법권의 철폐 및 남만주 철도부속지행정권의 이양에 관한 조약」을 통해 치외법권의 철폐를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만주국은 표면적으로 ‘완전한 법치국’, ‘민족협화의 건국이상’을 실현한 듯 하였지만, 실제로는 사법재판에 관한 「특칙」¹⁵⁾과 「滿日司法事務共助法」¹⁶⁾을 제정하여 日系, 즉 일본인과 조선인을 포함하는 ‘섭외사건’에서 특수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재만 조선인은 광복될 때까지 의연히 ‘일본신민’의 일부분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만주국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신민’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들은 복합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 속에 있는 타민족에 비해 더욱 우월감을 자아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제의 ‘민족 간의 이간정책’

13) Ibid p.126

14) 香川幹一 著, 『滿洲國』 東京: 古今書院發行, 昭和10年, p.136

15) 「특칙」이란 외국인 중에 일본인에 대한 재판은 (1) 외국인 관계의 사건은 ‘섭외사건’으로 처리한다. (2) 섭외사건 처리는 당분간 사법대신이 지정한 법원에 섭외정 및 섭외계신판관(日系)을 둔다. (3) 섭외정은 설정된 법원의 섭외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은 별도로 특칙을 설립한다. (4) 형사사건 중의 검찰사무에 대하여 검사관 외에 특히 日系경무지정판으로 검찰사무 처리자 및 연락의 日系서기관으로 검찰사무 처리자를 두어 예전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滿洲事情案內所編纂, 『滿洲帝國概覽』, 康德 9年, p.122)

16) 1938년 4월에 공포한 「滿日司法事務共助法」에는 (1) 소송서류의 송달 (2) 증거조사 (3) 범죄의 조사 (4) 송구장의 발부 또는 집행 (5) 체포장의 발급 또는 집행 (6) 형사판결의 집행 등에 대해 日滿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갖는 것인데, 이해 7월 15일 만주국과 조선, 관동주간에 사법사무공조에 관한 특례를 세웠다.(『滿洲國概覽』 p.122)

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日本陸軍中將 石原莞爾은 「民族協和에 끼친 朝鮮人の 貢獻」이란 글에서 만주국의 건립 과정에 있어서 일본인으로 조직된 가장 유력한 민간단체-「만주청년연맹」은 “諸民族의 協和를 期함”이라는 결의를 하고 “滿洲는 우리들의 손으로 支那本土로부터 分離를 식히리라. 그 經營은 諸民族이 相爭하는 아니라 眞實한 民族協和이 아니면 아니된다”는 結論에 達한 “民族協和에 最初로 달려든 사람의 朝鮮人諸君”이었다고 말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협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우리 日本人으로서 참으로 東亞의 問題를 解決하야 나아감에는 爲先第一로 우리들과 제일 血緣이 갖가움과 제일 關係가 密接한 朝鮮人の 問題를 어떻게든지 해가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朝鮮인이 三十年來의 辛苦에 依하야 마음으로써 깨다를 수 있게된 이 氣分을 우리들 日本人은 잘 理解해줄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케 朝鮮人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朝鮮人の 印象은 自己네가 民族協和의 正心으로 이제로부터 해나가라는 참으로 分明히 開悟하였슴에 不拘하고 兄弟님인 日本內地人은 우리 朝鮮人을 보기를 十年前 滿洲事變前의 저 民族鬭爭, 民族XX이라는데로 곳 생각이 가고 우리들의 心情을 조금도 몰라준다는 不平이 相當히 強力하게 잇는 것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要件대 民族協和라는 問題로 爲先 우리들과 제일 갖가움은 朝鮮人諸君이 非常한 힘을 더든 것입니다. 그러나 無論 民族協和라는 것은 精神에 依하는 것으로 東洋의 옛날로부터의 政治道德의 根本主義에 卽應하는 것임으로 漢民族이 이에 贊成한 것은 勿論입니다. 贊成은 하나 漢民族諸君으로서는 民族協和로서는 安만해도 承服할 수 없다. 아모리 滿洲에 王道樂土의 理想郷이 된다고 하더라도 最近 漢民族은 非常한 速度로써 民族的國家的의 自覺을 하여왔슴으로 젊은 知識階級은 支那本部로부터 따로 떨어져 日本人과 合力하

야 本國에 敵對할 수는 없다.¹⁷⁾

이처럼 일제는 만주국의 건국정신-‘민족협화’ ‘왕도낙토’의 건설에 있어서 ‘제일 혈연적으로 가깝고’ 또한 ‘제일 관계가 밀접한’ 것은 바로 조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는데, 즉 일본인과 조선인은 兄弟關係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인들의 존재를 ‘민족협화’에 있어서 그 위치를 漢人을 비롯한 타민족 보다 높이고 있었지만 사실 ‘내지인’(혹은 日系)과 ‘선계’(혹은 반도인)의 계선은 엄연히 구분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漢人, 그 중에서도 특히 “知識階級은 支那本部로부터 따로 떨어져 日本人과 合力하야 本國에 敵對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일제가 만주국 시기에 재만 조선인은 “邦人(일본인-필자 주)의 만주에서 발전, 특히 종래 定住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발전을 극도로 저해를 받았던 韓人에 있어서 天來의 福音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⁸⁾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일제가 만주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민족에 비해 재만 조선인에 대한 ‘통제’와 ‘이용’ 정책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필요한 특수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1937년부터 일제가 조선인들을 만주에 대량적인 집단이민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었다.¹⁹⁾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만주국’은 전시 동원체제로 들어갔고 특히 태평양전쟁이 폭발한 후부터 만주국에서 일제의 파시즘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재만 조선인들의 황민화운동-창씨개명, 신사참배, 근로봉사-은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민족동화와 민족말살을 목적으로 하는 황민화운동은 일제의 지배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

17) 『滿鮮日報』, 1940.5.17.

18) 香川幹一 著, 『滿洲國』 東京: 古今書院發行, 昭和10年, p.282.

19) 1937년부터 1941년까지 만주에 집단이민(혹은 집합이민)의 형식으로 입식된 조선인 숫자는 73,188명에 달한다.(小林英夫 著, 『日本帝國主義下的滿洲』, 東京: 1972, pp.262-263.)

도 그러한 강압적인 시책에 대해 일부 민족적 지성인들은 반대하고 거역하였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친일 조선인들은 자각적으로 부응하고 주동적으로 협력하면서 스스로 ‘신대동아질서의 건설’에 있어서 ‘만주국 국민의 의무’를 다 하는 모범이 되기에 여념이 없었다.

4. 조선인의 얼굴-‘抗日像’과 ‘親日像’

‘만주국’의 성립과 그 ‘신국가’의 틀 속에서 재만 조선인들의 법적인 위치는 형식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즉 ‘만주국’의 ‘국민’으로서, ‘오족’의 일원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국가’는 실로 유혹과 향수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예컨대 만주사변 전에 줄곧 중·일 양국의 외교적 분쟁으로 되었던 ‘토지상조권’문제는 만주국이 건립된 그 해 4월에 「土地商租辦法大綱」을 통해 다년간의 ‘懸案’이 해결됨으로써 ‘鮮農은 措地上에서 多大한 便利를 얻게 되었다.’²⁰⁾ 이것은 재만 조선인들이 ‘만주국의 국민’임과 동시에 ‘일본신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찍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봉화를 지켰던 민족지사와 항일투사들은 광범한 중국인들의 반만항일운동²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협동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인무장단체인 조선혁명군은 남만에서 당취오가 지휘하는 요녕민중자위군과 연합부대를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공 계열의 항일무장단체인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고, 한국독립군은 李杜, 丁超의 길림자위군·중동철도호로군, 길림

구국군과 연합하여 반만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일제의 토벌과 내부의 이념적인 갈등과 분열 등 원인으로 1933년 10월 한국독립군의 일부 장병들은 관내로 이동했고 조선혁명군의 일부 장병들은 동북항일연군에 편입²²⁾됨으로써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조선인들의 무장투쟁은 기본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 반면에 사회주의 계열(중공 만주성위)에 속하는 재만 조선인들의 항일유격투쟁은 만주사변 이후부터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들은 동만과 남만 그리고 북만의 항일유격대 창건과 항일유격근거지 건설에서 모두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연합부대의 성격을 띤 ‘동북인민혁명군’(1936년 3월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됨) 및 항일소부대 활동(1940.10-1945.8)에서 혁혁한 공적을 남겼다. 예컨대 만주사변으로부터 만주국이 멸망할 때까지 15년동안 전개된 반만항일투쟁에서 수많은 조선인(조선족)들이 보기한 생명을 바쳤는데, 연변지역 조선족 항일열사는 길림성 열사 총수의 41%, 전 주 열사의 93.8%를 점하며 그중에 항일녀열사는 길림성 항일녀열사 총수의 95%에 달한다. 이러한 숫자는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 비해 실로 특이한 현상이므로, 이것은 곧 조선인(조선족)들의 ‘抗日像’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민족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특수한 역사적 사명-‘중국 혁명’과 더불어 ‘민족 독립’이라는 목표가 내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국가-‘만주국’이라는 특수한 ‘신국가’속에서 재만 조선인들의 모습은 분노와 저항으로만 표현된 것만은 아니었다. 만주국

20) 『日帝下戰時體制政策史料叢書』 第1卷, p.182. 조선총독부는 남만지역에서 避難鮮人들의 귀환사무에 착수하였는데 귀환자는 4,032호, 19,878명으로서 전체 避難鮮人의 94%에 달했다.
 21) 만주사변 후에 일부 중국 동북군들은 요녕성의 당취오, 길림성의 마점산, 흑룡강성의 이두 등의 지휘하에 ‘의용군’ ‘구국군’ ‘자위군’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반만항일의 기치를 들고 일본군에 항거하였는데 그 병력은 최고로 30만에 달했다.
 22) 조선혁명군의 부총사령 박대호, 제2사 사장 최윤구, 참모장 최기홍 등은 60여명을 거느리고 환인현 우모령에서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편입됨으로써 중언을 고하게 되었다. (줄고, 「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항일작전-양세봉 사령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 p.75참조)

은 이른바 ‘鮮滿一如’ ‘日滿一體’ ‘王道樂土’ ‘民族協和’ ‘興亞秩序’ ‘大同亞共榮圈’ 등 수많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산출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충성과 효성을 동원시켰다. 특히 일제는 괴뢰정부-만주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夷韓制夷’의 정책, 즉 재만 조선인을 ‘이용’하면서 그들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만주국은 소위 개인의 영달과 벼슬의 꿈을 안고 있던 ‘鮮系國民’들에게 있어서 모험과 희망이 엇갈리는 무대로 되었고 또한 부일세력들이 모여드는 온상으로 되었다. 예컨대 민생단, 협화회, 간도협조회, 무장자위단, 및 선무공작반을 비롯한 친일 주구단체는 흔히 친일 조선인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또한 만주국군, 국경감시대, 경찰, 관리 등 직업에 종사하는 친일조선인들이 수없이 많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만주국에서 친일행적을 남긴 조선인들의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심’은 것처럼 자각적이고 주동적인 태도에서 광기로서 표출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간도협조회’의 회장(후에 ‘간도협화회’로 개칭된 다음 본부회장), ‘동변도 특별공작부’ 본부장을 맡고 관동군 촉탁으로서 선무공작 활동을 하다가 1937년 12월 7일 북만의 가목사에서 반만항일 세력이었던 김정국부대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동한은 ‘興亞의 先驅志士’ ‘新建設의 彗星’으로 높이 추앙되었고, 또한 1939년 12월 연길공원에 그의 동상과 함께 간도협조회기념비까지 세워졌던 것은 당시 만주국 속에 있던 ‘鮮系國民’들의 ‘영광’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²³⁾ 때문에 그는 죽은 후에도 만주국으로부터 ‘旭日章’(6등)이 수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극-「金東漢」까지 상영되어 선계국민의 ‘영웅’ 또는 ‘호국의 신’으로까지 불리웠다.²⁴⁾

그리고 특히 1938년 12월에 안도현 명월구에서 창설된 ‘조선인 간도특설부대’는 가장 전형적

인 ‘親日像’로서, 이것은 곧 재만 조선인들의 오욕의 역사이며 또한 한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당시에 이 부대는 ‘조선청년의 영예’와 ‘國家의 干城’으로 상징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을 위해 조직된 ‘특설부대위안회’는 각 부락에서 위로금을 모아서 ‘용사의 노고’를 위무하면서 ‘銃後の 赤誠’을 보여주었다. 1940년 1월 화룡현공서에서 ‘조선인특설부대’를 모집할 때 ‘애국에 불타는 유지청년 2천명이 용약 지원’하였는데, 그 중에 ‘영예의 예비검사 합격자’는 86명에 달했다.²⁵⁾ 당시 조선인 청년들이 ‘국군’으로서 ‘조선인 간도특설부대’에 자각적으로(혹은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모습을 1940년 4월 16일자 『滿鮮日報』는 「特設部隊募兵美談 父子의 熱烈한 志願으로 特設部隊에 合格, 汪清縣 李炳贊君의 榮譽」라는 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間島支局發]

지난 3월 1일에 입영한 조선인특설부대 모병 당시에 애국열에 넘치는 부자(父子)의 군국미담이 잇서 원근 촌민에게 만흔 감동을 주고있다. 때는 2월 초순경 왕청현 춘용촌 길상구(汪清縣春融村吉祥區)에 거주하는 리채성(李采成)씨는 그 아들 리병찬(李炳贊, 21세)군을 다리고 춘용촌공소로 와서 촌장 김삼룡(金三龍)씨를 방문하고 리채성씨는 다음과 가치 자기 아들을 기어히 군인채용하여 달라고 각곡한 부탁을 하였다.

“우리가 위정당국의 은택을 넘어 안주를 잊게 되엇슨즉 남세의 의무가튼 것을 직히여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업거니와 언제던지 정부의 은혜를 감사하여야 하겟다는 생각만은 가지고 잇던 바 다행이 모병제도(募兵制度)가 실시됨에 따라서 집안생활이 그리 넉넉지 못할뿐 아니라 장남이지만은 국가의 홍용을 위하여 봉공케 하오니 기어히 채용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리병찬군은 다음과 가치 말하였는데 부자가 모다 이와 가치 성의가 잇섯스니만큼 국가의 간성으로써 영예의 합격입영을 하여 원근의 칭송을 받고잇

23) 『滿鮮日報』, 1939.12.21.

24) Ibid, 1940.2.11.

25) Ibid, 1940.1.31.

다. “저는 아무아는 것 업습니다. 남자로서 할 일은 만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一사보국을 각오하여 국방 제1선에서 봉공하여야 할 것을 곱히 각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안신질서건설에 기여하려고 기여히 채용되도록 해주십시오.²⁶⁾

이처럼 당시 ‘엄선’²⁷⁾을 통해 ‘國軍間島特設部隊’에 입영하는 하는 조선인 청년들은 ‘만주국의 선계국민의 영예’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반도인의 영광’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國民의 義務’로서 ‘愛國의 赤誠’ ‘國家의 干城’을 다짐하는 ‘각오’와 ‘포부’를 지니고 조선인의 전형적인 ‘親日像’을 보여주는 국군 부대-‘조선인 간도특설부대’에 지원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비록 당시 이러한 신문보도가 전신체제라는 시국에서 대동아성전에 동원시키기 위한 선전 도구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확대된 보도라고 하더라도 조선인 청년들이 얼마나 자각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1943년 1월 14일 간도특설대원들의 영내좌담회 기사가 『매일신보』에 실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도인’으로서 혹은 ‘만주군민’으로서 “나라를 위하여 힘을 바칠 기회가 닥쳐왔다”거나 또는 “공산당과 지나군(중국인)의 양쪽으로부터 갖은 학대를 받아……그 원한을 풀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²⁸⁾ 그들은 국가에 대한 ‘애국’과 ‘충성’을 국민의 ‘의무’와 ‘영예’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국의 선계국민을 포함한 ‘반도인’들이 이 부대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던만큼 그들에 대한 기부금(혹은 위안금)도 협회회의 주체로 혹은 민간단체의 이름으로 혹은 학교, 종교단체 및 상회에서 ‘총후 보국’

의 미명으로 모집되었는데 1940년 6월 용정에 설치된 ‘특설부대위안회’는 2만 5천원의 위안금으로 모아서 ‘명예의 전사를 당한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만선일보』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特設部隊慰安金 二萬五千圓慰安金募集 間島朝鮮人の 美舉」라는 기사를 실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龍井分社發】

경도선 명월구에 잇는 조선인특설부대는 제작년 12월 16일에 국군의 일익으로 국방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입영한 이래 반년동안의 맹렬한 연습을 마치고 작년 4월 이래로 성내 벽지방면에는 비적이 출몰하게 됨에 용약 출전하여 비적토벌에 전력을 기울리던 중 불행히 작년 8월에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명예의 전사를 당한 용사들은 선계군민을 대표하여 국방 제1선에서 생명까지 바침에 잇서 그들의 가족이라도 위안하지 안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간도 전성 유지들의 마음에서 소사오르게 되어 작년 가을에 동 부대와 순직된 용사들의 가족을 위안할 목적하에 특설부대위안회를 조직하고 2만 5천원의 위안금을 모집중이던 바 얼마전에 각 지방에서는 이미 모집이 완료되었으나 연결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부에서 다소 모집되었을뿐으로 아직 모집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작년 4월 7일이래로 간도성내의 치안이 조지 못함에 따라 의용자위단설치의 필요를 늦기게 되어 작년 가을 이래로 안도현을 비롯하여 화룡, 양청, 연길 4현 벽지 제1선에 의용자위단을 설치하였다가 지난 봄에 신선대(新選隊)로 개칭하였는데 이 신선대도 日滿警토벌대와 호응하여 토벌 혹은 부락민보호에 위대한 공적을 남기고 잇스나 대원들의 가정에서는 생활난에 빠진 가정도 업지안음으로 省民으로서는 감격에 넘치는 동정이 잇서야 할것임을 깨닫고 각지방에서 위문금이 …(생략-필자)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간도실업회사 사

26) Ibid, 1940.4.16.

27) 당시 ‘조선인 간도특설부대’에 입영하는 조선인 청년들의 ‘志願資格’은 (1)康德六年八月一日로써 滿22歲未滿의 間島省内 居住朝鮮人 男子로서 省内에 生活本居를 有하는 身體健康、身元確實、品行方正한 者, (2)普校卒業程度以上學力을 有하고 日本語解得者, (3). 保證人 二名以上을 要함, 刑罰을 受치안흔者 또 軍人警官의 經歷을 有치안흔 者이다.

28) 林鍾國 著, 『日帝侵略과 親日派』, 靑史, 1982, p.384.

무실에 회합하여 특설부대위안금 5천원과 신선대위안금 2천원 모집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 즉석에서 다음과 가티 1천 2백 70원의 기부가 있었고 오는 9일 오후 2시에 다시 회합하여 모집에 대한 구체적 방책을 세우리라는바 일반 가민유지로서는 만흔 찬동이 잇기를 바란다한다.

이러한 위안금은 일반적으로 가촌을 단위로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경제 실체를 갖고 있는 상회 또는 기업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었다. 물론 이처럼 '安慰金'을 납부하는 개개인(혹은 집단)들의 동기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획일적으로 모두 친일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보도를 통해 당시 간도지역 조선인 뿐만 아니라 전체 만주국 속에 있는 간도특설부대의 이미지는 鮮系國民들의 '國軍을 사랑하는 赤誠'을 표징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상을 통해 우리는 국가=만주국의 강요라는 측면과 더불어 그 예측에서 혹은 강압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보국의 의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만 조선인들의 '親日像'을 엿볼 수 있다. 필경 이런 보도가 정치적 목적성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慰安金'을 자발적으로 동원된 '애국의 행위'로 운색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부금'은 실제상에서 協和會가 주체로 관방적인 성격을 띤 변상적인 강제 모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다시 역사의 기억이란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조선인들은 '종교보국'을 주창하면서 '신사참배'·'신도'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례로 수용하면서 '성전'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는데, 특히 '선만일체'라는 국가 운영의 이념에 의해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조선 내의 종

교인들도 일반적으로 반공·친일의 태도를 지니고 일제의 '동아론'에 부응하였다. 예컨대 1940년 1월 9일 천도교종무원의 주최로, 용정협화회 분회 및 조선일보 지국의 후원으로 용정의 흥중학교대강당에서 열린 이돈화의 시국 강연·'신동아건설의 이상과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의 요지는 "동아인에 동아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와도 절대성을 가졌으니 금차의 사변은 동아의 맹주 일본제국이 이 이상을 실현하는 성전이니 우리 동아인은 여하한 괴롭힘지라도 인내하여 국체에 순응하는데 잇서서만 신동아건설이 있다"²⁹⁾고 열변을 토함으로써 청중들에게 '지극한 감격'을 주었다고 한다.

일제의 '종교보국론'에 대한 종교단체의 기본적인 태도는 매우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종교계의 이러한 흐름은 만주국의 국가 이념에 따르는 친일·반공의 입장에서 표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40년 4월 2일에 결성된 '간도기독교연합회'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만선일보」(1940.4.7)는 '宗教保國을 宣言, 間島基督教聯合會 結成式을 盛大히 舉行'이라는 표제로 그 결성식 과정과 함께 그 선언문, 강령 및 규칙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龍井分社發]

기보=간도기독교도(間島基督教徒)의 대동단결-간도의 기독교도들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가티 건국정신(建國精神)을 체득하고 민족협화를 위하여 국운통창을 빌며 종교보국(宗教保國)의 석정(赤誠)을 다하기 위하여 간도기독교연합회(間島基督教聯合會)를 결성기 위하여 각방으로 준비 중이였었는데 준비도 완료되어 4월 2일 오후 2시부터 용정 은진중학교 대강당(龍井憲眞中學校大講堂)에서 림 용정헌병분대장(林 龍井憲兵隊分隊長), 민생부 후생사장(民生部厚生司長), 간도성장대리(間島省長代理), 협화회성본부장대리(協和會省本部長代理), 연길현장대리(延吉縣長代理) 등 다수 명사 참석리에 리기연 목사(李基淵牧師) 사회하에 다음

29) 「만선일보」 1940.1.12

의 순서로 의의 있는 결성식(結成式)의 막은 열리었다.

이 결성식에 참석한 단체는 23 단체로서 감리교(監理敎)가 2단체, 장로교(長老敎)가 15단체, 성결교(聖潔敎)가 6단체로서 결의한 사항(決議事項)은 2개 단체가 있는 곳에는 지부(支部)를 설할 것과 간도성장(間島省長)과 연결헌병대장(延吉憲兵隊長)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결정하고 동 4시경 폐회하였다. 그리고 선언과 강령은 다음과 같다.

「宣言文」

現下我國時局的重大性に鑑하여 建國精神을 體하고 民族協和를 하여 國運隆昌을 비는 것은 가장 緊急함을 認한다. 我等 基督信徒는 茲에 一致團結하여 國民의 本分을 다하고 一層 傳導邁進하여 帝國臣民으로서 報國의 誠을 致할 것을 誓하여 此를 宣言함.
康德七年三月十八日, 間島基督教聯合會

「綱領」

- 1. 信仰報國 2. 民族協和 3. 民衆教化 4. 宣撫反共 5. 自力自傳

「規則」

名稱

第一條 本會는 間島基督教聯合會라 稱함

目的

第二條 本회는 基督教信者의 團結을 圖하고 互相協力하여 基督教傳導의 實效를 擧하고 皇國臣民으로서의 報國의 誠을 致함으로써 目的으로 함.³⁰⁾

비록 이러한 선전과 동원은 일제의 괴뢰국가-만주국에 의해 창출되었다고 할지라도, 또한 이러한 재판 조선인사회의 친일적인 분위기는 일제의 파시즘통치에 의해 강요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親日像'은 민족사의 汚辱으로 기억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종교단체의 '宣撫反共' '皇國臣民으로서 報國의 誠을 致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1940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滿鮮日報」에 4차에 걸쳐 연재로 실린 조선인 기독교신자 金伊俊은 「日本精神과 基督教-특히 在滿鮮系敎會中心으로」란 글에서 자신은 사실은 조선인이지만 실체는 일본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의 신관-基督의 精神이 곧 '天照大神'과 동일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나는 基督의 證明하신 人類의 神 卽 天地創造의 神을 信仰하는 것이다. 이 創造의 神은 猶太人만을 創造한 것이 아니고 天地萬物을 다 創造하셨다고 基督은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天地萬物을 創造하신 神은 日本과 日本人도 창조하셨을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日本人이 日本을 創造하셨다는 '天照大神'은 하늘에 계셔서 땅에 빛쬐신다는 뜻으로 天地創造의 神을 天照大神이라고 불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天地創造의 神을 猶太人은 '여호와'이다 일컫고 滿洲에서는 '上帝'다 일컫고 半島方言으로 '하느님'이라는 바 우리 日本에서는 天照大神이라고 일컫는 것이란 말이다. 그러한 八紘一字精神을 生覺하여도 天照大神은 한 日本의 民族神은 아니다. 이는 天地創造의 神을 日本人이 일컫는 稱號에 틀림이없다.³¹⁾

또한 그는 '日本人으로서의 自覺' 즉 '朝鮮人은 日本人으로서의 自覺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日本人은 兄, 朝鮮人은 弟라는 一家의 兄弟關係'를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가 日本人이라야 먼저 말한 모든 信念이 마음의 信念일 것이다. 그러타. 내가 임이 日本人이다. 그러나 事實은 朝鮮人이다. 그 事實이 朝鮮人이기 때문에 徹頭徹尾大局을 認識하기 前에 말노만 日本人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래도 마음으로부터 日本人이 아니고 時勢에 따라서 日本人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政策이라고 할가? 하나의 方便일 것이다. 마음에 업는 것을 時勢가 그러하니가 日本人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머도 劣等의 取扱을 받는 것이 아닐 것이냐? 그러므로 東亞精神에 則한 朝鮮人은 大局을

30) 「滿鮮日報」, 1940.4.7. '간도기독교연합회'의 「규칙」은 모두 '부칙'까지 포함하여 11조로 구성되었다.

31) Ibid, 1940.7.14.

分明히 認識함으로 日本人임을 自覺하지 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大局을 보아 東亞가 한집이 되어 사는 것이 조타. 그런고로 八紘一字精神에 마음을 돌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何必 東亞가 한집이되어 日本人으로써 살게 무엇인가?하고 말할지도 몰은다.. 나는 여기서 根本적으로 그 思念을 들어나니 中原을 비롯해서 朝鮮과 日本은 同色同文의 한 血體의 族屬임이 틀림이없다.

이는 一家가 아니냐. 이 一家中에 兄弟가 여럿이라면 兄友弟恭하는 것이 道德의 本義이고 그 中 그 一家를 濟家할만한 아들이 하나 잇서야 할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면 그 濟家할만한 資格이 있는 아들에게 그 父母는 살림을 맡겨서 그밖에 동생들의 將來까지 指導하게하는 것인. 이것이 當然한 일이라고 본다면-先覺한 日本은 東亞라는 一家를 歐美植民主義 侵略의 壓迫에서 救出한 것은 東亞人으로써 否定할 수거 업는 것이다. 萬一 日本이 아니었으면 東洋의 道義는 西洋의 霸權主義에 永遠히 삼키워졌을 것이다.³²⁾

김씨는 백인의 죄악을 열거하고 그들이 인류의 적임을 극력 주장하면서 이른바 구라파 백인들의 ‘黃禍論’의 대두를 혹평함과 동시에 “인간은 여기에 奴屬되어 살 수 업는 것”이며 또한 “이 殘酷 武道한 勢力을 擊退하고 獨立存在의 自由平等을 奪回하여 道義東亞 建設의 大業의 實現에 一路邁進하는 日本의 正義에 共鳴하지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³³⁾라는 결론에 따라 ‘日本人의 國民’으로서 ‘聖旨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基督者의 約束’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大東亞人으로써 좁은 民族心을 是正해야 될 것이다. 一家의 살림을 資格있는 아들에게 맡겼스니 一家의 幸福을 爲하여 兄弟는 힘을 숨해야 될 것이다. 基督의 하나되기를 願하신 뜻을 奉體한 基督者는 勿論 그리할 것이다. 이에 나는 日本人이 되는 것이 아니라 一視同仁의 聖旨에 奉體하여 日本人이다. 崇祖精神-東洋은 勿論 西洋에까지라도 사람을 사랑하여 道德이 노포신 이들의 高潔한 精神에 머

리를 숙이고 또는 皇家聖主의 民恤의 聖業에 體하여 敬仰하며 그 聖旨에 마음을 바치는 것으로 이것은 日本人의 國民으로서의 하나 約束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담론은 재만 조선인의 종교-특히 기독교와 천주교 및 불교를 포함한 만주국의 공인 종교에 속한 종교단체의 보편적인 경향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종교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역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단(혹은 교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만주국 시기에 있어서 종교계에 몸을 담았던 많은 종교인들은 흔히 재만 조선인의 ‘親日像’으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됨에 따라 만주국은 무너졌지만 만주지역은 또 다시 국공내전이라는 전운이 긴장하게 감돌게 되었다. 시대의 급속한 변천은 재만 조선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운 운명의 길을 선택하는 십자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여기서 한마디 부언할 점은 광복 후에 만주에 거주하던 200만에 달하던 재만 조선인들 중에서 약 80만이 한반도=북한/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그들의 귀국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상당한 부류는 만주에서 반민족적인 행적을 남겼던 ‘친일파’들이 속해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5. 나오는 말

역사는 기억의 역사이고 또한 해석의 역사이다. 그리고 기억은 역사로 기록되고 또한 역사로 해석된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기억의 역사는 과거의 史實이고 해석의 역사는 오늘의 事實이다. 史實은 곧 事實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僞史’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해석의 역사-

32) Ibid, 1940.7.16.

33) Ibid.

‘事實’을 통해 기억의 역사·‘史實’을 규명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근대 한민족의 디아스포라(離散)형태로 나타난 재만 조선인(조선족)의 이주와 만주의 관계에서 역사적 맥락을 더듬어 그들의 고토관념을 살펴보았다. 비록 재만 조선인들의 초기 이주는 경제적 원인에서 기인되었지만 그들의 민족적인 심성 속에서 만주에 대한 애착은 타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달리 깊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식민지 시대에 정립되기 시작한 민족사학의 선구자들의 만주론은 일반적으로 ‘민족고토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일제는 ‘以韓制夷’의 목적에서 또한 희유정책의 일환으로 재만 조선인들에게 ‘고토의식’을 주입시켰던 점을 지적했다.

만주에 대한 역사와 기억에서 ‘만주국’은 동아시아 여러 민족들에게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주국의 건립과 그 ‘신국가’의 체제 속에서 활동한 재만 조선인들의 사회적 법적인 위치·‘제2의 국민’-를 밝힘으로써 일제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국가·‘만주국’에 대한 지배에서 재만 조선인을 통제·이용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고찰하였다. 특히 만주국에 대한 재만 조선인들의 기억은 분노와 반항·‘抗日像’뿐만 아니라, 유혹과 향수·‘親日像’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만주국은 재만 조선인들에게 두개 갖지 않는 거울에 비추어지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즉 ‘抗日像’은 만주국을 ‘타도’와 ‘반동’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면, ‘親日像’은 만주국을 ‘충성’과 ‘효성’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은 14년의 단명으로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무너졌지만 그 역사는 동아시아 여러 민족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서 기억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중국 내에 거주하는 공민권을 취득하고 한 개 소수민족으로 정착하고 있는 조선족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특히 만주국시기의 항일투쟁사·‘抗日像’의 조각에만 부심하고 있을 뿐, ‘親日像’

은 소외시키고 있다. 그 원인은 그런 기억들은 민족 단결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앞서고 있는 이유 외에도 그들·‘친일파’가 이미 ‘역사적 청산’을 받았다는 이유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만주국은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반항과 분노의 대상·‘抗日像’으로 씌어진 역사로 기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혹과 향수의 젖은 추억·‘親日像’으로 얼룩진 오욕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개의 서로 다른 모습은 결코 오늘날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역사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복 전에 만주 땅에 발자취를 남긴 모든 한민족의 역사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만주에는 곳곳에 ‘만주국의 유물’로서 수많은 근대적인 산업화기술의 물질적 흔적들이 남아있다. 만주국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일제침략사’ 혹은 ‘항일투쟁사’로 기록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내포된 기억과 의미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재해석·재조명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라고 본다.

[초록과 주제어]

본 논문에서 필자는 근대 한민족의 디아스포라(離散)형태로 나타난 재만 조선인(조선족)의 이주와 만주의 관계에서 역사적 맥락을 더듬어 그들의 고토관념을 살펴보았다. 비록 재만 조선인들의 초기 이주는 경제적 원인에서 기인되었지만 그들의 민족적인 심성 속에서 만주에 대한 애착은 타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달리 깊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식민지 시대에 정립되기 시작한 민족사학의 선구자들의 ‘만주 담론’은 일반적으로 ‘민족고토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일제는 ‘以韓制夷’의 목적에서 또한 희유정책의 일환으로 재만 조선인들에게 ‘고토의식’을 주입시켰던 점을 지적했다.

만주에 대한 역사와 기억에서 ‘만주국’은 동아

시아 여러 민족들에게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주국의 건립과 그 '신국가'의 체제 속에서 활동한 재만 조선인들의 사회적 법적인 위치·'제2의 국민'-를 밝힘으로써 일제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국가·'만주국'에 대한 지배에서 재만 조선인을 통제·이용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고찰하였다. 특히 만주국에 대한 재만 조선인들의 기억은 분노와 반항·'抗日像'뿐만 아니라, 유혹과 향수·'親日像'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만주국은 재만 조선인들에게 두개 같지 않는 거울에 비추어지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즉 '抗日像'은 만주국을 '타도'와 '반동'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면, '親日像'은 만주국을 '충성'과 '효성'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주국은 14년의 단명으로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무너졌지만 그 역사는 동아시아 여러 민족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서 기억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중국 내에 거주하는 공민권을 취득하고 한 개 소수민족으로 정착하고 있는 조선족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특히 만주국시기의 항일투쟁사·'抗日像'의 조각에만 부심하고 있을 뿐, '親日像'은 소외시키고 있다. 그 원인은 그런 기억들은 민족 단결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앞서고 있는 이유 외에도 그들·'친일파'가 이미 '역사적 청산'을 받았다는 이유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만주국은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반항과 분노의 대상·'抗日像'으로 씌어진 역사로 기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혹과 향수의 젖은 추억·'親日像'으로 얼룩진 오욕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개의 서로 다른 모습은 결코 오늘날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역사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만주국과 조선인의 정체성을 조명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믿는다.

주제어: 만주고토론, 만주국, 조선족(조선인), 抗日像, 親日像

提 要

記憶與解釋的意味: '滿洲國'和朝鮮族

崔峰龍

筆者在本文通過近代韓民族之離散形態而出現的在滿朝鮮人(朝鮮族)移住與滿洲關係的歷史脈絡, 考察了其故土觀念. 雖然他們的初期移住起因大體上在於經濟原因, 但是他們的民族心性中對滿洲的愛著, 相對地來講不僅比其他民族特別深, 而且在始於日本殖民地時代定立的民族史學之先驅者們的'滿洲談論'一般都是與'民族故土論'相提並論, 因此認為這對在滿朝鮮人給了相當的影響. 另外, 還指出了日本帝國主義從'以韓制夷'之目的或懷柔政策之一環向在滿朝鮮人灌輸'故土意識'之點.

對滿洲之歷史與記憶中, '滿洲國'是在東亞各民族有着特殊意味, 所以通過闡明滿洲國建立與其'新國家'體制里生活的在滿朝鮮人之社會位置·'第二國民', 從而敘述了日本帝國主義在支配新形態殖民地國家·'滿洲國'對在滿朝鮮人實行統制·利用'之二重性政策. 特別是提出了在滿朝鮮人對滿洲國的記憶不僅有憤怒與反抗·'抗日像', 而且還有誘惑與享受·'親日像'之兩種畫像. 滿洲國對在滿朝鮮人認為是兩種不同鏡子照射的對象, 即'抗日像'是把滿洲國視為'打倒'與'反動'的對象; 而'親日像'是把滿洲國視為'忠誠'과 '孝誠'的對象.

滿洲國雖然是以十四年的短命在歷史舞台上告終, 但是其短暫的歷史給東亞各國民族留下了相互不同意味的記憶. 當然, 如今敘述居住在中國境內已取得公民權并以一個少數民族定位的朝鮮族歷史的時候, 只重視雕刻滿洲國時期的抗日鬪爭史·'抗日像', 而疏外'親日像'. 其原因, 首先是來致於那種恥辱的'親日像'記憶不利於民族團結的政治判斷; 其次是來致於他們·'親日派'在中國過去已經受到應有的

‘歷史清算’之理由。滿洲國是在在滿朝鮮人的記憶里不仅是反抗和憤怒的對象-‘抗日像’之歷史記錄，而且又是沉浸于誘惑和享受的對象-‘親日像’之污辱歷史記錄也包括在內。但是，在此值得一提的问题是这两种不同的形象，并不能只看成爲今日生活在中國境內的‘朝鮮族’歷史。这是光復前在滿朝鮮人的歷史特殊性所決定的。筆者認爲这种考察有助于對滿洲國和朝鮮人的正體性之再照明。

主題語: 滿洲故土論, 滿洲國, 朝鮮族(朝鮮人), 反日像, 親日像